깨달음이란 행복이다



원웅 스님의 경전산책

㊺ 화엄경(華嚴經) 1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화엄경〉이다. 모든 문장이 명쾌하고 박진감 넘쳐서 좋다. 절대 손에서 놓을 수 없는 매력이 넘치는 경전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야할 길을 네비게이션처럼 확실하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에 앉아 시동을 걸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 가상의 세계에서 혹은 네비게이션만 켜놓고 출발하지 않는다면 어디로도 갈 수 없다. 이처럼 실천하는 행동력을 상세히 보여주는 경전이 〈화엄경〉이다.

나는 올 해 봄부터 동학사 화엄승가대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젊고 활기찬 학인스님들을 화엄의 세계로 안내하며 그들이 세상 속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인연들을 행복으로 이끄는 방법론을 가르치며 그 길을 함께하니 말 할 수 없이 좋다.

지금 수행을 시작한 이들에게 놓인 많은 갈림길에서 혹여 길을 잃거나, 확신 없이 막연히 흐름을 따라가거나, 살아있는 수행을 하고 싶거나, 심지어 모두 멈추고 싶은 그 때에 나는 이들 모두를 부처님의 광명 속으로 인도하고 싶다. 〈화엄경〉은 모든 수행을 안내하는 교과서라서 행복을 찾는 확신으로 가득 찬 삶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

불교는 부처님이 만나신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수많은 경전들이 존재한다. 이 많은 경전들을 다 포용하며 중생이 부처님이 되는 큰 그림을 그려가는 가르침이 〈화엄경〉이다. 다른 경들도 모두 각 분야에서 뛰어난 경전들이지만 다 깨달음과 행복으로 가는 조각들이다. 〈화엄경〉은 이 조각을 다 모아서 하나로 만든 완성된 퍼즐이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

'세계성취품'과 '화장세계품'을 통해 세계가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며 존재가 이루어진 것은 인연 따라 만나고 흩어진다는 연기(緣起)가르침으로 나를 돌아보게 한다. 마치 나의 몸이 100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나라는 사람이 된 것처럼 공존만이 살 길임을 알게 한다.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성제품'과 '여래명호품' 그리고 '광명각품'을 통해 모든 괴로움을 푸는 열쇠인 사성제인 고집멸도의 가르침을 주신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여 중생의 안목을 버리고 부처님의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법에 대하여'

첫째, 가장 행복한 길을 보여주시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지니는 법에 관한 십신(十信)이다.

둘째, 일체중생은 모두 부처님의 성품을 지녔으니 삶의 바라보는 마음가짐인 불자의 가치관 십주(十住)다.

셋째는 행복한 마음으로 사는 열 가지 실천 법인 십행(十行)을 시작하게 한다.

넷째는 실천하는 동안 행복해졌으니 그 행복을 나누는 십회향(十廻向)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다섯째는 행복을 나누는 동안 자존감이 높아져 생겨나는 불협화음을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도록 해주는 마음의 지혜나눔인 십지(十地)의 길에 들어서게 한다.

여섯째는 몸도 마음도 모두 행복하니 주변에 모인 모든 이들도 평등하게 행복해 진다. 부처님이 보시는 곳을 보고 있는 등각(等覺)의 경지에 오르지만 아직 내 것은 아니다.

일곱 번째는 세상에 머물되 세상에 물들지 않으며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부처님이 탄생하니 묘각(妙覺)의 경지다. 묘각은 중생이 보살이 되고 보살이 부처님이 되어 다시 중생곁으로 돌아오신 것을 말한다. 이렇게 52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화엄경은 다시 한번 선재동자의 순례를 통해 우리에게 확실하게 행복을 이루게 하고, 그 길의 결론을 보현의 행원으로써 지금 이 순간 우리도 중생에서 바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필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으며 매 순간 십바라밀을 실천을 권한다. 〈화엄경〉 결론은 '보현행원(普賢行願)'이다. 고통에 빠진 우리들을 구하러 오신 부처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부처님처럼 사는 방법인 보현행원으로 멋진 인생의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다.

〈서울 반야사 주지〉

사고 전환이 바로 금강경식 교육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㊹ 금강경 교육법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온 교육의 특징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모르는 존재다'라는 기본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지식을 획득하고 자연과학을 탐구하고 도덕교육 및 대인관계 등 교육내용은 모두 지식중심의 교육이었습니다. 지식이 많은 스승이 시험을 통한 지식평가와 시뮬레이션, 지식중심의 토론 등 교육방법으로 접근하다보니 난제해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런 지식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새롭고 획기적인 창의성 교육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의 기본전제 또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모르는 존재에서 출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첨단지식과 리더쉽 교육 그리고 난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고방식의 전환훈련을 교육내용으로 하면서, 창의력 개발을 위한 토론을 활성화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훈련을 키우는데, 창의성이 뛰어난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교육을 받음으로서 숱한 난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난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교육에 비해 금강경식 교육은 기본전제가 인간은 본래부터 부처님처럼 다 아는 존재에서 출발합니다. 일체유심조, 공, 불이 등의 금강경 진리를 바탕으로 정신은 가만히 두고 육체는 규칙적으로 움직이면서, 더불어 가족과의 일정기간 격리를 통한 교육방법을 통해 그 업보를 해탈하게 되면,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난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이것에 대한 확신은 분명합니다. 캄캄하고 무지한 내가 무엇을 아는 정도로 변화할 수 있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와 맺었던 업보, 즉 불쌍한 마음의 해탈 덕분이었습니다. 나는 비로소 선지식의 위대성과 금강경 공부의 실용성,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금강경 공부를 통하여 나같이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도 변하여 능력자도 되고 도덕군자도 되며 성자도 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구족한 부처님과 같은 존재요, 또 실제로도 시시각각으로 소원을 이루고 있는 위대한 존재라는 가정 하에 금강경 공부를 하면, 그 누구나 마음속의 탐심의 벽, 진심의 벽, 치심의 벽이 본래 공임을 알게 되고, 마음속에 깊게 쌓인 열등감이 하나하나 제거되면서 고난이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중노동을 하지 않았다면 어찌 건강을 찾을 수 있었을까? 척박한 생활을 겪어보고 이를 부처님께 바치지 않았다면 어찌 지금의 행복, 편안함을 맛볼 수 있었을까? 어리석음을 바치지 않았던들 어찌 지혜가 생길 수 있을까? 궁한 마음을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풍요로울 수 있을까?

금강경 공부는 공부하면서 만나게 되는 각종 고달픈 일이 한결같이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좋은 선물이었음을 알게 하였습니다. 또한 무지가 주는 고난이 곧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되었고, 번뇌로 인한 고달픔이 곧 보리를 잉태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으며, 드디어는 생사가 곧 열반임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강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각종 고난을 만날 때 불평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깊이 감사하며 고난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금강경식 교육만이 진정한 인성교육이고 지혜교육이므로 다방면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금강경식 교육을 행하는 교육기관이 탄생한다면, 분명 수많은 인재가 배출되어 나라를 최선진국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연생연멸(緣生緣滅)과 '이 뭣고'

진실(眞實)과 허망(虛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허망을 허망이라고 깨닫는 그것이 곧 진여(眞如)이고 여래장(如來藏)이다. 공(空)을 통하지 않고, 허망의 도리를 깨치지 못하고서는 불도를 이를 수가 없다. 망령(妄靈)된 마음이 허망인 줄 깨달으면 허망한 현상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며 해탈을 이루게 된다.

삼라만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거짓인 가(假)이며 색(色)이다. 그것은 모든 현상은 인연에 따라 연생연멸(緣生緣滅)하는 것으로, 공(空)에서 이루어지고 만유만사가 공에서 연기하며, 영원불변의 실체성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거짓인 것이고 인연이 다하면 흩어지기 때문에 공이다. 비록 실체가 없는 가(假)이지만, 그 속에 공(空)이 있음을 보고 공에서 가를 보면서 자유자재로 쓰는 것을 중(中)이라 한다. 예로 술이 발효돼 식초가 되지만 그 바탕은 술이다. 그러나 식초에 술은 보이지 않지만, 그 가(假)속에서 공(空)을 보는 것이다. 이것이 중도(中道)이며 연기법(緣起法)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설명하는 모든 것들은 마음이 만들어 낸 환영(幻影)일 뿐이고, 영혼(靈魂)이나 신(神) 윤회(輪廻)도 마음이 만들어 낸 관념(觀念)일 뿐이다. 나(我) 라는 것도 진짜 나(我)가 아니라, 아상(我相) 아집(我執) 아만(我慢)이라는 허망한 그림자를 진짜 나 인줄 착각(錯覺)하고 있을 뿐이다.

생사(生死) 또한 하나의 환상(幻想)이다. 진실(眞實)은 불생불멸(不生不滅)이다. 불법은 만법(萬法)이 모두 생각(生覺)이고, 관념(觀念)이며 식(識)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도 일체가 심식(心識)에 의지해서 빚어낸 '허망한 업(業)의 그림자' 일 뿐이다.

암(識)이 본래 스스로 아는 앎이 없건만, 중생이 허망(虛妄)한 생각을 붙잡아서 나의 마음(識)으로 삼음으로써 무명(無明)이 벌어진 것인데, 일단 이것을 실체(實體)로 오인(誤認)하고 집착심(執着心)을 일으키는 것이다.

참된 수행이란 이 허망한 한생각이 떠오를 때 즉시 알아차리고 '이 뭣고'로 그 뿌리를 잘라 버림으로서 다생겁래에 걸쳐 쌓아 제 8아뢰야식에 저장된 아타나란 미세망념의 인습(因習)을 재현(再現)을 차단(遮斷)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업장소멸(業障消滅)을 시키며 생활속에서 반야지혜를 굴려쓰는 것이 '이 뭣고' 이다.

인연따라 생멸 변화하는 일체의 사물은 허망한 인연이 화합해서 마치 몽(夢) 환(幻)처럼 이루어 지는 것으로, 이 모두가 실체성(實體性)이 없는 것인데, 중생들은 눈앞의 온갖 현상(現象)을 실유(實有)로 오인해 분별하고 집착함으로서 이 세간의 모습이 '있음'이 된 것이다.

또한 삼계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생사도 역시 환영이며 물거품이며 그림자이며 꿈속의 일이다. 현상의 제법은 일심이 인연을 따라 발생했을 뿐 마음자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연연으로 발생한 만법은 본래 무생의 본무이기 때문에, 만법이 소멸한다 해도 인연이 사라졌을 뿐 마음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본무일심(本無一心)은 인연의 화합을 따라 제법으로 나오지도 않았고, 인연의 분리를 따라 사라지지도 않는다.

연생연멸(緣生緣滅)이라, 나도 남이 없고 멸해도 멸함이 없는 것이 연기성(緣起性)이다. 간화선 '이 뭣고'는 이 연기성을 깨닫고 공적영지한 본래 성품자리를 증득하는 것이다.

비유해서 땅은 생(生)이 없는데 콩(豆)의 종자(種子)를 심으면 콩이 나오지만 땅에 의(依)해서 나기 때문에 이 생(生)은 우리가 육식으로 밖으로 보면 형상이 있는데, 연기성이기 때문에 무생(無生)이며, 이 무생이 화중생연(花中生蓮)이며, 불가운데 연꽃이란 불덩어리가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이며, 거북털이니 토끼뿔이 공성(空性)이다. 불이 시뻘건 화로서 연꽃이 핀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간격이 없는 동시(同時)인 시무애(時无涯)이고, 작금(昨今)이 바로 영산회상이며 부처님과 나와 자타의 간격이 없는 처무애(處无涯)이며 도솔천 내원궁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한국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한국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 사진 안, 밖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사찰등록증
- 주지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300번지 (오정산 백봉사)
■ 종무소 : 전국대표번호 1577-1016 / 054)571-6973 / 054)571-1030 / 054)571-7497 / 팩스 054)571-7498
■ 한국불교방송 : 대구시 달서구 새동네로107 예림빌딩 606호

대한민국 불교종단 역사

대한민국 불교종단 역사는 신라시대 5교9산의 선문(禪門)전통에 따라 비로서 종문(宗門)이 개창(開創)되고 고려시대에 이르러 천태, 조계종을 필두로 종파(宗派)가 설립되어 제종파(諸宗派)가 제각기 부종수교(扶宗樹敎)의 일념으로 불조(佛祖) 혜명(慧命)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을 면면히 계승해 오다 조선조에는 선교양종(禪敎兩宗)으로 제종을 통합하여 오다가 그후로는 조계종(曹溪宗)만의 단일종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해방 이후 제종파 시대가 열리고 또한 1988년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불교 수 많은 종단이 창종되고 소멸되고 이제 그 실체를 파악하여 관계부처에 자료제공과 신문과 방송, 불교언론에 널리 홍포코자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종승(宗承)을 선양하니 해동대한민국에 불일(佛日)이 중휘하고 자비광명이 삼천리 강토에 비추리라. 이와같이 종지 종풍으로 일가를 성립할 수 있어 각기 종명을 세우고 이 땅에 불일중흥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한국불교 조계종 (사)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한국불교방송 ㈜한국불교방송신문사

대구시 달서구 새동네로 107 예림빌딩 606호 / 전화 1670-2012